

전남도 소방본부의 '굴욕'

전남도 소방본부가 지역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부실한 구조 활동으로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는가 하면, 구조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한 달새 압수수색만 두 차례=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전남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특장 구조 등 초동 대처 부실 논란이 일면서 지난 4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당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전남경찰이 전남소방본부 119 상황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19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초동대처 부실로 화를 키웠다는 논란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불러왔다. 소방관들은 수사관들이 119 상황실에서 상황일지 등을 수색하는 것을 속수무책 지켜봐야 했다.

앞서 전남소방본부는 1992년 1월 창설 이래 최초로 지난 4월 28일 사법당국의 압수수색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세월호 침몰 당시 최초 신고자와 소방본부 간 교신 녹취록, 상황 일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소방본부를 압수수색 한 것이다.

◇신중치 못한 언행으로 불신 자초=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불신을 받고 긴급 상황시 안일한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요양병원 화재 당시 총 지휘를 맡았던 담양소방서장이 밝힌 '환자 결박은 없었다'는 발언은 사흘도 지나지 않아 거짓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국민은 발언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소방당국이 일부러 요양병원을 배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담양소방서장은 장성 경찰청에 출석해 "내 부하들 말만 믿고 선불리 결박은 없

세월호 참사 특장대처 논란

한달도 안돼 압수수색 두차례

장성 요양병원 화재팬

신중치 못한 언행 불신만 자초

인력·장비부족에 예산 타령

지역 재난 컨트롤 타워 맞나

있다고 잘못 말했다. 하지만 유착 의혹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전남소방본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 중이던 광주소방헬기를 도청으로 불렀다가 곤욕을 치렀다. 긴급 출동하던 헬기에 전화를 걸어 도청 간부를 태우고 현장에 가달라고 부탁한 것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다. 소방헬기는 20분 이상 현장에 늦게 도착, 결과적으로 구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못해, 소방본부 "어려운 재정 탓"=26일 현재 전남소방본부 관내에는 소방관 1명이 근무하는 '나 홀로 소방서'가 합평 신광지역대를 비롯해 41개로 전국(81곳) 절반 수준이다.

소방관 혼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을 끄고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탓에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7분 7초로 경북(9분8초), 강원(7분36초)에 이어 전국 18개 소방본부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현장 도착에만 '골든타임' 5분을 넘어서 초기에 불길을 잡아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돼 인명 피해로 직결되는 것이다.

특히 전남소방본부에는 담양소방서 등 12개의 소방서가 있는데 이는 전남 22개 시군의 절반 수준으로 소방서 1곳이 2개시군을 관할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 한 밤중에 난 불로 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의 경우 가장 먼저 출동했던 삼계 119센터에는 5명 만이 근무하고 있어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출 작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담양 소방서가 담양·장성·곡성 등 3개 군을 관할하고 있어 대형 화재시 초기에 상황을 장악하고 인력 투입과 화재 진압 등을 지휘해야 할 소방서장이 골든타임을 훨씬 지난 뒤에야 현장에 도착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남소방본부는 이 같은 현실을 재검토하기로 돌리고 있다. 1년 예산 1574억 가운데 2000명을 웃도는 소방관의 인건비에만 1181억(75%)이 들어가는 탓에 인력을 더 늘리거나 장비 구입에 쓸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한 달 사이 대형 사건이 전남에 집중돼 일정 부분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전남도가 재정이 탄탄하지 않아 소방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0 해질 19:51
달출 05:16 달질 19:33

자녀 손잡고 떠나보세요!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주말 비 소식은 없었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19/30	보성	구름많음	17/29
목포	구름많음	19/27	순천	구름많음	18/29
여수	구름많음	20/26	영광	구름많음	18/28
나주	구름많음	19/30	진도	구름많음	19/26
완도	구름많음	19/28	전주	구름많음	19/31
구례	구름많음	17/30	군산	구름많음	17/30
강진	구름많음	19/29	남원	구름많음	18/30
해남	구름많음	19/28	축산도	구름많음	18/25
장성	구름많음	18/29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	서~북서	0.5
남해	앞바다	남~남서	0.5	서~북서	0.5
남해	서부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생활지수

식중독	70
운동	40
빨래	70

◇주간 날씨

28(토)	29(일)	30(월)	7/1(화)	2(수)	3(목)	4(금)
☀	☀	☀	☀	☀	☁	☁
19/29	21/30	21/30	21/31	22/31	22/27	23/27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효사랑 한마음 잔치 제21회 장애인어르신과 함께하는 효사랑 한마음 잔치가 북구장애인복지회 주최로 26일 오전 광주 북구 그랑시아 웨딩타워에서 관내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검 '일복 터졌다'

세월호 참사 재판 전담 속 전례없는 대형사건 폭주

공안·특수부 등 야근 일쑤... "재판 기일 늦춰달라"

광주지검이 전례 없는 대형 사건을 도맡으면서 눈코 뜰새없이 분주하다. 배당 사건이 넘쳐나면서 밤 12시까지 야근하는 검사가 대부분으로, 엄청난 조사를 위한 재판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현재 세월호 침몰 참사, 민·관유착 부패사범(관피아), 장성 요양병원 방화 참사, 지방 선거 비리 사범, 해경 부실 대응 수사 등을 총괄하고 있다. 공안, 특수, 강력, 공판, 형사 1·2·3부 등 부장검사 7명 중 5명이 특별 수사팀이나 업무를 맡고 있다.

당장,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을 위해 공판 준비기일에는 4명, 공판 절차에 들어가면서 5명의 공판 관여 검사를 선정, 공소유지를 담당하게했다.

강력부의 경우 4명의 검사 중 박재익 강력부장, 김영오·조영성 검사 등 3명이 매달렸고 특수부 김현우 검사, 순천지정에서 한 명의 검사를 지원받기도 했다. 이들은 김한식 대표 등 정해진 해운 임직원들의 재판 뿐 아니라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안전설비 직원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에도 관여하게 된다.

특수수사부는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책임하고 있다. 광주지검의 경우 이두식 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특수부장·형사 2부장 등 검사 10명, 수사관 41명 등 53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여기에 형사 2부는 해경의 부실 대응 수사까지 떠안고 있는 형편이다.

공안부는 25일까지 선거사범 175명을 입건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 비리를 쟁기느라 정신이 없다.

형사 3부는 장성 요양병원 방화 참사 수사팀을 별도로 꾸려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이 때문에 5~6건에 불과했던 4개월이 넘는 장기 수사 사건이 지난달 40건 가량 폭증했다. "미제 사건이 30~40% 가량 늘었고 검사 1인당 배당 건수가 2배가 넘어 매일 12시까지 야근한다"는 말도 나온다.

급기야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A 전 군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재판(화·목·금) 및 관련 증거 조사 일정 등을 감안, 재판 기일을 늦춰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애초 검찰은 해당 재판 공소 유지를 공판부가 아닌, 사건을 담당할 검사에게 맡도록 했지만 세월호 재판에 투입되면서 차질이 우려되자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www.treksta.co.kr | 제품문의 | 1599-0055

Treksta

트렉스타 봄·여름
시즌 오프 SALE

SALE 50%^{최대}

S/S 의류 전품목 50~30% | 신발 50~10% | 2014년 6월 20일부터

트렉스타 광주 아울렛점
GRAND OPEN

트렉스타 특석 직매점 062-956-8338~9 광주광역시 광안구 신정동 1136번 | 광주 아울렛점 062-384-68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637 광주 아울렛 트렉스타 | NC 광주점 062-510-7712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6-1번지 7층 트렉스타 | 롯데광주 월드아울렛 062-606-2933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423-2번지 롯데광주 월드아울렛 2층 트렉스타 | 롯데광주 수완아울렛 062-616-22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장신로 82번길 65 롯데광주 수완아울렛 수완점 2층 트렉스타 | 트렉스타 목포점 061-243-1417 전남 목포시 상동 879-1 | 트렉스타 여수점 061-663-0231 전남 여수시 중앙로 54(교동) | 트렉스타 전주점 063-284-58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27-38 | 트렉스타 호주점 063-222-408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주동 3가 1045-44 B5호 | 트렉스타 안산점 063-222-672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정승대교로 109번지 | 트렉스타 익산점 063-857-3663 전북 익산시 무왕로 1009-20(영평동)